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45호, 제2046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20년 10월 30일
4.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일

II.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2,881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6,292억 2천 9백만원 대비 3,411억 1백만원(△54.2%) 감소하였음.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예산안 개요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증감율(%)
계	629,228,673	288,127,653	△341,101,020	△54.2
일반회계	483,286,944	192,630,370	△290,656,574	△60.1
세외수입	11,993,623	12,403,510	409,887	3.4
경상적세외수입	2,674,012	2,679,768	5,756	0.2
임시적세외수입	9,319,611	9,723,742	404,131	4.3
지방교부세	166,152,121	180,092,860	13,940,739	8.4
지방교부세	166,152,121	180,092,860	13,940,739	8.4
보조금	141,200	134,000	△7,200	5.1
국고보조금	141,200	134,000	△7,200	5.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5,000,000	-	△305,000,000	△100
내부거래	305,000,000	-	△305,000,000	△100
균형발전특별회계	145,941,729	95,497,283	△50,444,446	△34.6
세외수입	30,148,300	6,397,283	△23,751,017	△7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148,300	6,397,283	△23,751,017	△7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5,793,429	89,100,000	△26,693,429	△23.1
내부거래	117,448,767	89,100,000	△28,348,767	△24.1
보전수입등	△1,655,338	-	1,655,338	100

-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906억 5천 6백만원(△60.1%) 감소한 1,926억 3천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직무발명 관련 사유특허권 실시권 처분료, 서울 글로벌센터빌딩의 임대료와 국제회의장 대관료 수입을 합한 26억 8천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승소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액, 보조금 전용카드 캐쉬백 적립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소송비용 환수액으로 97억 2천 4백만원임.
- 지방교부세 수입은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폐지 관련 재원보전)와 소방 안전 교부세를 포함해 1,800억 9천 3백만원임.
- 국고보조금은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과 인력운영비로 1억 3천 4백만원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04억 4천 4백만원(△34.6%) 감소한 954억 9천 7백만원임.
-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과밀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의 50%)으로 전년대비 237억 5천 1백만원(△78.8%) 감소한 63억 9천 7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입금(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대비 266억 9천 3백만원(△23.1%) 감소한 891억원임.

나. 세 출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52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9,893억 5천 3백만원 대비 △2.4% 감액되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7,733억 9천 5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900억 2천 4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8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사업비는 3,130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0억 5백만원 (△10.6%)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3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백만원(0.5%)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2,702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131억 3천 2백만원(△44.1%) 감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900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38억 2천 1백만원(2,963.4%)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재무활동비는 1,892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32억원(3,017.1%)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7억 5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2천만원(473.3%) 증액 편성되었음.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증감율(%)
총계		989,353	965,252	△24,101	△2.4
일반회계	계	982,809	773,395	△209,414	△21.3
	사업비	350,077	313,072	△37,005	△10.6
	예비비	148,037	188,753	40,716	27.5
	재무활동	483,382	270,250	△213,132	△44.1
	행정운영경비	1,313	1,319	6	0.5
도시개발특별회계	계	6,203	190,024	183,821	2,963.4
	재무활동	6,072	189,272	183,200	3,017.1
	예비비	131	751	620	473.3
균형발전특별회계	계	341	1,833	1,492	437.5
	예비비	341	1,833	1,492	437.5

-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제도 운영 1억 4천만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억 6천 4백만원, 민사·행정 소송 수행 13억 7천 2백만원, 서울세계도시 문화축제 3억 9천 7백만원,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1억 2천만원, 도시교류협력행사 1억 2천 2백만원, 시티넷 사무국 운영지원 1억 3천만원 등이 전년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재무활동비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액(일반회계) 1,691억 6천 8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액(도시개발) 802억원이 전년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 580억원,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 4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반면, 감액사업은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가 미편성되었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1억 8천만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33억 1천 3백만원, 기관별 성과평가 1억 9백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관리 1억 1천 5백만원, 기관운영경비 5억 2천 3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50억 1백만원, 자매도시교류 1억 1천 4백만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억 7백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재무활동비로는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전출금 17억원,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 전출금 23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83억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감채기금 적립금은 순세계잉여금 미확정으로 미편성되었음.

○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의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정현안 기획조정 】

- 시정계획 수립조정 6억 2천 8백만원
- 대의회 지원 1억 6백만원

【 시정의 효율성 제고 】

- 시정시책 연구용역 20억 8천 7백만원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1억 2천만원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2억 8천 2백만원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631억 2천 1백만원
- 서울연구원 출연 315억 5천 4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2억 5천만원
- 민간위탁제도 운영 8억 7천 9백만원

【 시정평가 기능 강화 】

-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2억 1천만원
- 기관별 성과 평가 9억 8천 6백만원
- 지자체합동평가 실적관리 8억 7천 6백만원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확대 】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6억 5천만원

-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2억 5천 2백만원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7천 2백만원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7억 4천 7백만원
-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66억 9백만원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

-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4억 6천 8백만원
-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운영 1억 2백만원
-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1억 3백만원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 15억원

【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

- 성과주의예산 운영(재정정보) 2억 1백만원
- 예비비(일반회계) 1,833억 3천 4백만원
- 예비비(도시개발) 7억 5천 1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785억 6천 1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도시개발) 862억 7천 2백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 580억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 450억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891억원

【 효율적 재정운영 】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1,911억 7천 3백만원
- 균형발전박람회 서울전시관 운영 1억 5천 8백만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8천만원
- 재정통계 분석관리 8천 3백만원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4억 7천 5백만원
-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2억 1천 9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 및 정책연구 지원 7천 8백만원

【 국제교류협력 추진 】

- 자매도시 교류 2억 1천 9백만원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4억원
-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5억 5천만원
- 도시교류협력행사 2억원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10억원

【 세계도시협력추진 】

-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7천 4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1억 9천 8백만원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6억 7천 6백만원

-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8억 2천 8백만원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24억 5천 9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9억 7천만원

2.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 5개 계정으로 2021년도 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1조 29억 5천 1백만원(△52.0%) 감소한 총 9,248억 1백만원임.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A)	2021년도 (B)	증감	
				B-A	%
계		1,927,752	924,801	△1,002,951	△52.0
재 정 투 융 자 기 금		1,123,022	746,309	△376,713	△33.5
감 채 기 금		788,314	164,575	△623,739	△79.1
대외협력기금	국 내 계 정	6,958	4,760	△2,198	△31.6
	국 제 계 정	8,283	2,461	△5,822	△70.3
지 역 개 발 기 금		1,175	6,696	5,521	469.9

-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 규모는 7,463억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67억 1천 3백만원(△33.5%) 감소하였음.
- 감채기금의 운용 규모는 1,645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37억 3천 9백만원(△79.1%) 감소하였음.

-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의 운용 규모는 47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9천 8백만원($\Delta 31.6\%$) 감소하였음.
-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의 운용 규모는 24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8억 2천 2백만원($\Delta 70.3\%$) 감소하였음.
-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규모는 66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 2천 1백만원(469.9%) 증가하였음.

Ⅲ. 예산안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서울시 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가. 국내·외 경제 여건

-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도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음.
- IMF의 세계경제전망(10.13)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3%로 역성장하고, 미국(△5%)과 유럽(△7.5%)의 경제 타격이 깊어 내년에도 극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로 인한 고용 충격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OECD, IMF와 국내 기관¹⁾ 등은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 전망을 마이너스 1%대로 예측한 바 있음.
- 내년도 경제상황 역시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공급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적응력 강화, 주요국가들의 경기부양 기조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1) 한국은행 △1.3%, 국회예산정책처 △1.6%, KDI △1.1%, 한국금융연구원 △1.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0%, 현대경제연구원 △0.8%

벗어나 불안정하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기관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세계경제	국내경제		전망시점
		2021년	2020년	2021년	
국 내	정부	-	0.1	3.6	2020. 6. 1.
	국회예산정책처	-	△1.6	2.3	2020. 9.29.
	한국은행	4.7	△1.3	2.8	2020. 8.27.
	한국경제연구원	5.4	△1.1	3.1	2020.11.11.
	한국금융연구원	-	△1.2	2.9	2020.11. 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2	△1.0	2.7	2020.10. 5.
	현대경제연구원	-	△0.8	3.0	2020.10.30
국 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5.0	△1.0	3.1	2020. 9.16.
	세계통화기금(IMF)	5.2	△1.9	2.9	2020.10.13.
	아시아개발은행(ADB)	6.8*	△1.0	3.3	2020. 9.15.

* 아시아개발은행의 세계경제전망은 아시아 45개 회원국의 전망치임.

-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우리나라는 내년 경제성장률의 낙폭은 작지만 수출개선과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 관리와 함께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와 재정정책이 요구됨.
-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과 ‘민생안정’ 을 위해 올해 사상 최초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단행하였으며, 2021년 예산안은

여기에 포스트코로나의 선제적 대응을 추가하면서 총 40조 479억원을 편성하였음.

나. 2021년 서울시 세입·세출예산안

(1) 2021년 서울시 세입예산안

- 2021년도 서울시의 전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감소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1.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도 서울시 세입 추계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안)	2020년	증 감	비 율
총 규 모	40,047,933	45,004,840	-4,956,907	-11.0
자 체 수 입	24,683,570	23,951,437	732,133	3.1
지 방 세 (시 세)	20,023,706	19,552,425	471,281	2.4
취 득 세	5,058,937	4,632,967	425,970	9.2
지 방 소 득 세	5,196,430	5,433,080	1,945	3.7
지 방 소 비 세	1,824,280	2,041,427	-217,147	-10.6
주 민 세	601,134	594,465	6,669	1.1
자 동 차 세	1,186,241	1,104,975	81,266	7.4
레 저 세	42,702	124,873	-82,171	-65.8
담 배 소 비 세	580,150	564,349	15,801	2.8
재 산 세	3,394,557	2,998,999	395,558	13.2
지 역 자 원 시 설 세	304,768	300,925	3,843	1.3
지 방 교 육 세	1,633,502	1,534,287	99,215	6.5
지 난 년 도 시 세	201,005	222,078	-21,073	-9.5
세 외 수 입	4,659,864	4,399,012	260,852	5.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487,876	3,395,094	92,782	2.7
임 시 적 세 외 수 입	660,217	628,558	31,659	5.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11,771	375,360	136,411	36.3

구 분	2021년(안)	2020년	증 감	비 율
지 방 교 부 세	180,093	180,269	-176	-0.1
국 고 보 조 금	7,134,619	10,070,168	-2,935,549	-29.2
지 방 채	2,230,683	2,843,754	-613,071	-21.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18,968	7,959,212	-2,140,244	-26.9

- 지방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지방소비세와 레저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예정이나,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안정적인 세수 신장세가 예상된다.
-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5.9%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교통유발금 및 각종 부담금 등(1,241억원), 공유재산 임대료(1,637억원)의 증가와 함께 정상적 세외수입에 DMC랜드마크 부지매각 수입(7,500억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정부 내시액 감소로 △0.1%(2억원)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역시 내시액 감소로 △29.2%(2조 9,355억원) 감소하였음.
- 지방채 발행계획액은 2조 2,307억원으로 기본한도액(1조 6,103억원)과 별도한도액(1조 1,939억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채발행 총한도액 2조 8,042억원보다 5,735억원 작은 규모이며 전년대비 △21.6%(6,130억) 감소하였음.
-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와 경제 동향에 민감한 세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이전재원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전망,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바탕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 그동안 서울시는 지방세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없이, 지방세 수입 규모를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보수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편성해 오고 있음.
- 실제로 전년도 결산 전망보다 낮게 지방세 수입을 편성해 본예산과 결산 간의 오차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2020년 세입예산 역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 지방세 수입 예산과 결산의 차이 >

(단위 : 십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전망	예산안
지방세	14,126	16,569	15,555	17,817	17,096	19,103	17,786	19,665	19,552	21,480	20,023
오차율	17.3%		14.5%		11.7%		10.6%		9.9%		

- 반면, 세외수입은 매년 세입 예산보다 적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세외수입 결산 내역 >

(단위 : 십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결산	본예산	최종	

										예산	예산안
세외수입	3,744	3,586	3,849	3,727	4,053	3,925	4,053	3,925	4,433	4,399	4659
경상적	2,716	2,495	2,697	2,579	2,627	2,627	2,627	2,627	3,465	3,428	3487
임시적	1,028	1,091	1,152	1,148	1,426	1,298	1,426	1,298	968	971	66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511

※ 2021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집중 세입관리가 필요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 관리(행정안전부, 2021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세외수입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이며, 2021년에도 DMC랜드마크 매각대금(7,500억원)이 포함되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규모의 세입 손실할 전망이다.
 - 2020년에는 DMC랜드마크 매각대금(7,5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매각이 무산되었고, 2021년에도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어 이후 지구단위계획 절차와 매각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한편, 계획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됨.
- 따라서 재산매각의 가능성과 매각대금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고, 세출

예산 규모에 맞춰 매각이 불투명한 재산수입을 인위적으로 과다 산입하는 것은 올바른 세입추계 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또한, 지방세와 같이 명확히 포착 가능한 재원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출 재원으로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지방재정이 경제안정 및 성장 등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2021년 서울시 세출예산안

- 2021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 최종 예산대비 4조 9,569억(△11%) 감액된 40조 479억으로 일반회계가 27조 6,658억원, 특별회계가 12조 3,821억원임.

<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예산(안)	2020예산	증 감	
			예산액	증감비율(%)
총계	40,047,933	45,004,840	△4,956,907	△11.0
일반회계	27,665,803	32,528,019	△4,862,216	△14.9
특별회계	12,382,130	12,476,821	△94,691	△0.8

- 이 가운데 ‘회계간 전출입’ 으로 중복 계상된 4조 6,98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 3,493억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전출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10조 4,675억원)를 제외한 실제 집행예산 규모는 24조 8,818억원임.

<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 법정의무경비 내역 >

법정의무경비 총계 : 10조 4,675억원	
자치구 지원	5조 4,541억원
교육청 지원	3조 4,091억원
채 무 상 환	1조 1,089억원
기금전출 반환금 등	4,954억원

< 2021년도 서울시 순계 예산의 부문별 자원배분 내역 >



- 예산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는 복지예산으로 2020년 대비 0.4%(465억원)이 증가했고, 도로교통 분야 또한 확대되었으나(6.3%), 공원 환경, 문화관광 등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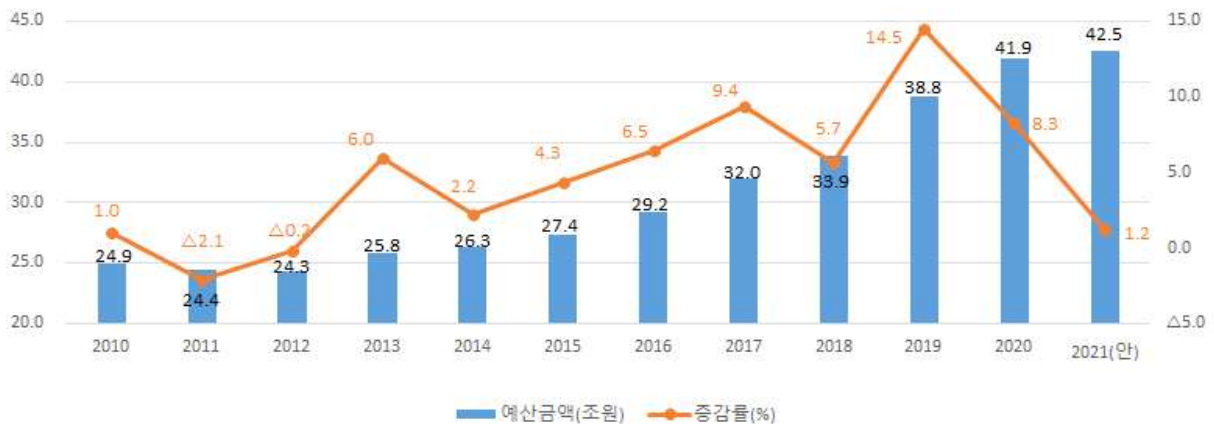
< 2021년도 서울시 분야별 예산안 >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예산안		2020년 당초예산		증감		비 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사 회 복 지	129,715	36.7	129,250	36.6	465	0.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감염병 대응력 강화
도 로 교 통	25,640	7.3	24,131	6.8	1,509	6.3	걷고 싶은 도시 실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공 원 환 경	22,964	6.5	26,850	7.6	△3,886	△14.5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달성, 수질관리 강화
도 시 안 전	13,760	3.9	15,280	4.3	△1,520	△9.9	도시노후화 선제적·예방적 대응, 재해·재난 대응망 구축
주 택 정 비	12,098	3.4	13,417	3.8	△1,319	△9.8	미래세대 주거여건증복지 강화
일 반 행 정	9,155	2.5	10,110	2.9	△955	△9.4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청년의 사회출발 지원
산 업 경 제	8,033	2.3	8,804	2.5	△771	△8.8	신산업 R&D 지원 확대, 혁신성장 거점 조성, 소상공인 지원
문 화 관 광	7,088	2.0	8,268	2.3	△1,180	△14.3	일상 속 문화활동 촉진, 관광시장 회복 지원

- 한편, 2021년 예산의 총지출(기금 포함) 규모는 42조 4,6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바, 이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4.7%에 못 미치고,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임.

서울시 총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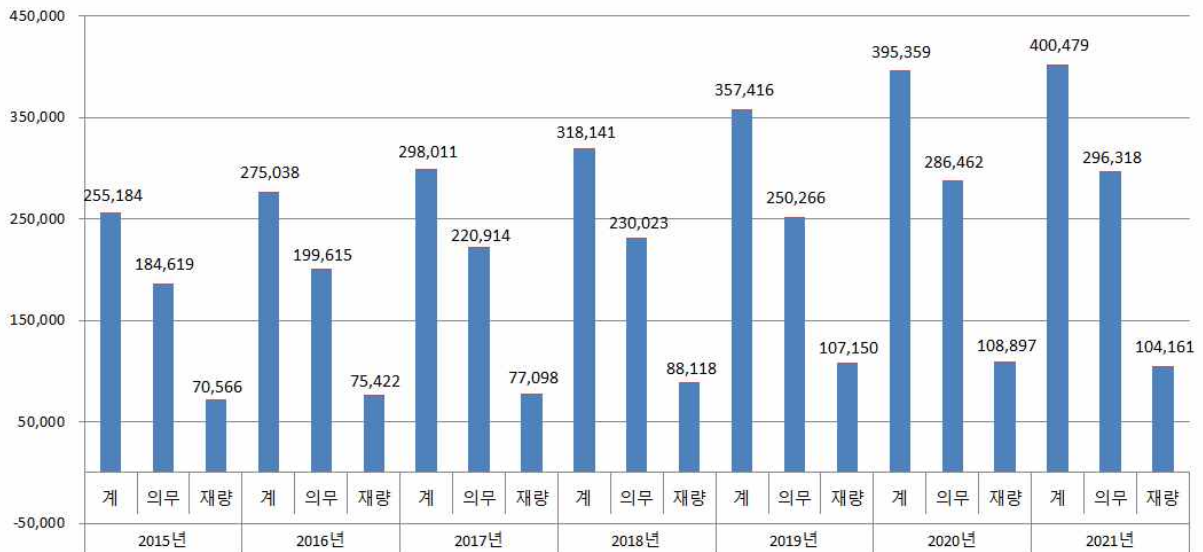


자료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자료

-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라 시비 대응투자가 6,043억원 증가하고 자치구 및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이 2,974억원 등 약 9천억원의 의무지출 비용이 증가하였음.
- 이로 인해 전체 예산에서 서울시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2015년 27.7%에서 2021년 26.0%로 낮아지면서 예산지출의 자율성과 재량권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서울시 예산 중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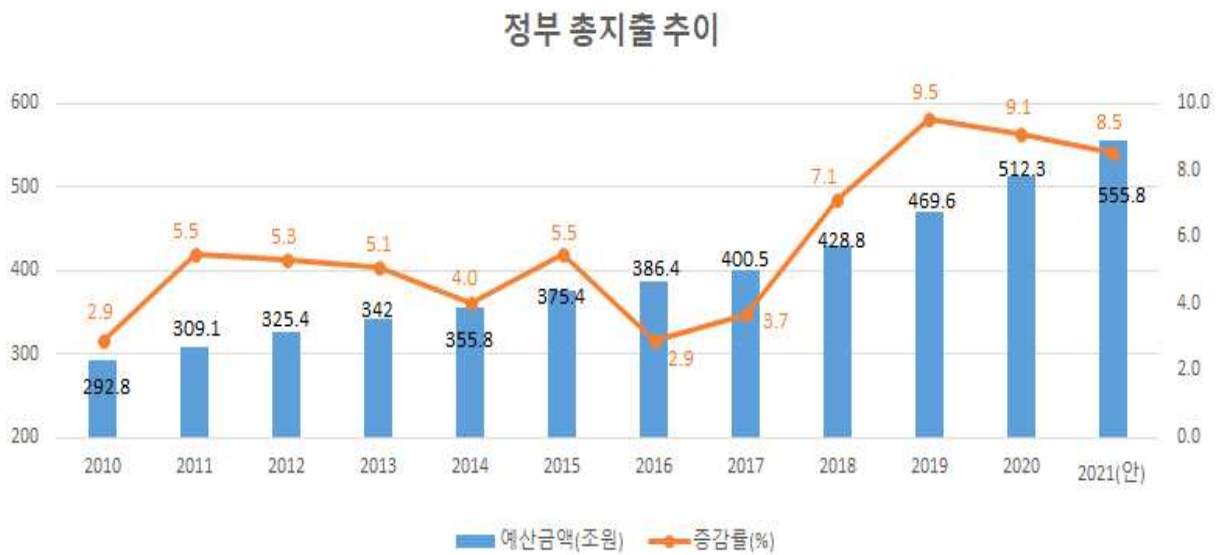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자료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자료

- 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은 555.8조원[올해 본예산 대비 8.5%(43.5조원), 4차 추경 대비 1.1조원(0.2%) 증가]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국정과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위기대응 성과를 계속해 나가고, 미래의 발전전략과 지속성장 경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음.



- 따라서 서울수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보조를 맞추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도적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가. 2021년 세입예산안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2,881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54.2%(3,411억 1백만원) 감소하였음.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도	2021년도(안)	증감	증감률
합계	629,229	288,128	△341,101	△54.2
일반회계	483,287	192,630	△290,657	△60.1
균형발전특별회계	145,942	95,497	△50,444	△34.6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6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906억 5천 7백만원(△60.1%) 감소하였음.
 - 이 중 세외수입은 124억 3백만원, 지방교부세 1,800억 9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 3천 4백만원임.
- 세입 예산 과목별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억 8천만원으로 서울글로벌센터 임대료 25억 2백만원,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권 실시권 처분료 수입 5천 5백만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대비 8백만원 증가하였고, 서울글로벌 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수입인 ‘기타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97억 2천 4백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에서 소송비용 회수액 3천 9백만원, ‘그 외 수입’에서 승소확정사건 소송비용회수액 2억 3천 3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90억 2천 1백만원, 보조금전용카드 캐시백 적립금 1억 1천 1백만원 등임.
-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분인 보통교부세 1,464억 2천 2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²⁾ 336억 7천 1백만원 등에서 전년대비 139억 4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협의회 지원금과 인력운영비 1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백만원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원 및 내부거래는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3,050억원)이 전년대비 순감하였음.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사유
합 계	483,286,944	192,630,370	△290,656,574	
경 상 적 소 계	2,674,012	2,679,768	5,756	

2) 2020년 4월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소방인력의 단계적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20%에서 45%로 조정하였음.

예 산 과 목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사 유
세외수입	공 유 재 산 임 대 료	2,549,795	2,557,508	7,713	○ 직무발명 시유특허권 처분수입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기타사용료	124,217	122,260	△1,957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임 시 적 세외수입	소 계	9,319,611	9,723,742	404,131	
	그 외 수 입	9,304,709	9,685,014	380,305	○ 승소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액 ○ 지역상생발전기금 ○ 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적립금 등
	지 난 연 도 수 입	14,902	38,728	23,826	○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소송비용 회수액
지 방 교 부 세	소 계	166,152,121	180,092,860	13,940,739	
	보통교부세	140,782,000	146,422,000	5,640,000	○ 분권교부세 분
	소 방 안 전 교 부 세	25,370,121	33,670,860	8,300,739	○ 소방안전교부세
보 조 금	국 민 특 별 행 정 회 보 조 금	141,200	134,000	△7,200	○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 인력운영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수금수입	305,000,000	-	△305,000,000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 감소

○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는 노력과 함께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의 경우, 2017년부터 초과징수와 과소징수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재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공유재산 임대료) >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857,799	2,165,761	2,208,028	2,078,546	2,200,306	2,443,028	2,489,404	1,585,311	2,460,244	2,502,478

-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와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는 정확한 추계가 곤란해³⁾ 전년도 예산이나 결산 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추계를 하고 있으나, 예산과 결산 간에 오차 규모가 크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예산·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편성액
보통교부세	110,441,000	140,043,000	140,043,000	164,605,000	156,352,000	140,782,000	146,422,000
소방안전교부세	33,000,000	38,957,359	33,000,000	27,055,362	45,333,000	25,370,000	33,670,000
예산과 결산 오차 규모	35,559,359		18,617,362		△35,533,000		

(2)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54억 9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504억 4천 4백만원(34.6%) 감소하였음.

3)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분은 2015년도 교부액에 해당연도 내국세 증감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세부교부기준에 따라 17개 시도에 교부하고 있음.

< 2020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2020년도	2021예산(안)	증 감	증감율(%)
균형발전특별회계	145,942	95,497	△50,444	△34.6
세외수입(임시적)	30,148	6,397	△23,751	△7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148	6,397	△23,751	△78.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5,793	89,100	△26,693	△23.1
내부거래	117,449	89,100	△28,349	△24.1

-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밀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이 전년대비 △237억 5천 1백만원(78.8%)이 감소한 63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부거래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대비 283억 4천 9백만원(24.1%) 감소한 891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2021년 세출예산안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9,652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2.4%(241억 1백만원) 감액되었음.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안)	증 감	증감율
총 계	989,353	965,252	△24,101	△2.4
일반 소 계	982,809	773,395	△209,414	△21.3

회계	행정운영경비	1,313	1,319	6	0.5
	재무활동	483,382	270,250	△213,132	△44.1
	사업비	350,077	313,072	△37,005	△10.6
	예비비	148,037	188,753	40,716	27.5
도시 개발 특별 회계	소계	6,203	190,024	183,821	2,963.4
	재무활동	6,072	189,272	183,200	3,017.1
	예비비	131	751	620	473.3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소계	341	1,833	1,492	437.5
	예비비	341	1,833	1,492	437.5

(1)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7,733억 9천 5백만원으로 감채기금 적립금(△3,500억원 순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의 재무활동비가 대폭 감소되어 전년대비 △2,094억 1천 4백만원(21.3%)이 감액되었음.
- 사업비는 3,130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억 5백만원 (10.6%)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3억 1천 9백만원으로 6백만원 (0.5%)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은 2,702억 5천만원으로 △2,131억 3천 2백만원(44.1%) 감액되었음.
- 신규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 민간위탁제도 운영 1억 4백만원,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억 6천 4백만원, ▶ 민사·행정소송 수행 13억 7천 2백만원,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3억 9천 7백만원,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1억 2천만원, ▶ 도시교류협력행사 1억 2천 2백

만원, 시티넷 사무국 운영지원 1억 3천만원 등임.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증액사유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년		'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사유
	본예산	최종예산 (A)			
서울연구원 출	33,640	31,548	31,554	6	· 총예산액 9억(연구사업비 △4, 경영사업비 12, 인건비 4, 수탁사업계정 △3) · 자체수입 8억 증액에 따른 출연금 6백만원 증액 ※ 출연금 산출 : 총예산액에서 자체수입 공제
민간위탁 제도 운영	775	775	879	104	·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및 종합성과평가 대상사무 증가 (회계감사) 228개 → 280개 (성과평가) 38개 → 45개
조직원 관리시스템 유지 및 기능개선	46	46	49	3	· 유지보수 대상 증가 및 기능 추가로 '20년 대비 약 7% 증액
시정주요 성과관 영	227	187	210	23	· 성과관리시스템 기술지원 종료(Adobe社)에 따라 시스템 보강(5백만원) · 민선 8기 시정 주요사업 평가 위해 전문기관 평가(20백만원) · 업무추진비(△2백만원)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	321	286	650	364	· 행안부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400백만원) · 홍보비, 워크숍 경비감액(△20백만원) · 홈페이지 관련 예산 (△13백만원) · 기타(△3백만원)
민사, 행정 소송 등 수행	5,257	5,237	6,609	1,37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소송 증가(1,000백만원) · 전산개발비(30백만원) · 자문관리시스템 운영비(2백만원) · 철거민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판결금 관련 배상금 (400백만원)
예비비	129,397	148,037	188,753	40,716	· 예비비 조정
재정투융자 기금 상환	9,393	9,393	178,561	169,168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소요액 증액
재정투융자 기금 상환 (도시개발)	6,072	6,072	86,272	80,200	·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수금 상환액 편성

사업명	'20년		'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사유
	본예산	최종예산 (A)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24	24	72	48	· 재정분권 TF 구성에 따른 운영비 반영 · 특정업무경비 세부사업 변경(지방재정투자심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지방교부세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	20	20	37	17	· 17개 시도가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타시도와 동일금액 편성
지역혁신협의회지원	87	127	158	31	· 2021년도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 정부예산안 통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 연구용역비(국비) 매칭(38백만원)
균형발전위원회운영	281	81	108	27	· 코로나19등 상황 고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박람회를 포럼형태로 변경
국고보조금반환	40	40	88	48	· 2019년 지역혁신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45백만원) 및 발생이자(3백만원) · 2020년 연구용역비(국비) (40백만원)
투자, 출연, 자관 등 경영평가수행	471	471	475	4	· 시책업무추진비 (△1.5) · 특정업무경비 정원증가 3명 (5.6)
서울세계시문화축제	597	3	400	397	· '21년도에는 축제규모 및 개최방식 조정하여 '20년 본예산 대비 감액
국제행사및회의지원	100	0	39	39	· '21년도에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지원 수요 감소 반영(행사운영비 4백만원 감액, 외빈초청여비 전액감액)
자매우호결사	240	0	120	120	· '21년도 코로나19 지속 고려, 해외도시와 행사추진 규모 및 방식 조정 후 '20년 본예산 대비 행사운영비 감액
도시협력교류행사	680	78	200	122	· '21년도 코로나19 지속 고려, 행사규모 및 방식 조정하여 '행사 운영비 감액 및 외빈초청여비 전액감액
우수정책해외진출사업수행	174	56	74	18	·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타깃도시초청연수를 온라인 초청연수로 재추진
국제기구유치및교류협력	836	609	676	67	·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된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개최비용 재반영
시티넷사무운영지원	698	698	828	130	· 사무국 운영비(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 증액
서울글로벌센터빌딩	2,420	2,420	2,459	39	· 건물 내외 수선유지비 및 비품비용 86백만원 증액

사업명	'20년		'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사유
	본예산	최종예산 (A)			
운 영 관 리					· 동력비 △21백만원, 성과금 △27백만원
우 수 정 책 해 네 트 워 크 확 대 사 업	75	15	41	26	· '21년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 참가비용 반영

- 반면, 주요 감액 사업은 ▶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 1억 8천만원,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33억 1천 3백만원, ▶ 기관별 성과평가 1억 9백만원, ▶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관리 1억 1천 5백만원, ▶ 대외협력기금(국내·국제협력계정)전출금 40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50억 1백만원, ▶ 자매도시교류 1억 1천 4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억 7백만원 등임.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 사업 및 감액 사유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감액	감액사유
시 정 계 획 수 립 조 정	667	628	△39	·현원 증가로 특정업무 경비 반영(14백만원 증) ·시정고문단 폐지(45백만원 감) ·국외업무여비 재반영(15백만원 증) ·업무추진비 감액(10백만원 감)
공 무 원 직 접 수 행 학 술 용 역	62	50	△12	·집행률 등 고려하여 전년대비 80% 수준으로 감액 ※ 최근3년간 평균집행액 53백만원
직 무 발 명 보상제도 운영	183	120	△63	·사무관리비(△50백만원) - 직무발명심의회 횟수 감소 등 ·포상금(△13백만원) - 집행률 등 고려 감액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462	282	△180	·사무관리비(△180백만원) - 지방분권협의회횟수조정(4→2회, △5백만원), 자치분권 홍보·교육 콘텐츠 개발(△130백만원),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감액	감액사유
서울시립 대학교 운영지원	66,434	63,121	△3,313	[감액사업 △60억원] 시설확충비 △44억, 연구기관 지원사업 △8억 등 [증액사업 +27억원] 정보화운영지원 +21억, 기관공통운영비 +4억 등
자치경찰 제 실시 대비	70	50	△20	·자치경찰 용역추진('20년)에 따른 용역비용 감액 (△20백만원)
기관별 성과평가	1,095	986	△109	·예산과 추가 감액(포상금)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실적 관리	991	876	△115	·'20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따라 행안부 특별교부세 규모 변동
지속가능발전의 시정내재화	75	60	△15	·대면방식 위원회 운영 횟수 및 토론회 축소(15백만원 감액)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294	252	△42	·행정심판 개최횟수 감소 (30회 → 27회, △24백만원)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 감소 (50건 → 25건, △12백만원) ·중앙행정심판 비용 감소 (20건→8건, △6백만원)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93	72	△21	·소청심사 개최횟수 감소 (10회 → 9회, △2백만원) ·규제개혁 토론회 횟수 조정 (3회 → 1회, △4백만원) ·규제개혁 공모전 통합 운영에 따른 감액(△13백만원)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 변호사 운영 등	806	747	-59	·홍보비 등 32백만원 감액 ·전산개발비 41백만원 감액 ·상담료 등 14백만원 증액
서울-지역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및 운영	146	102	△44	·지역상생자문회의비(△48백만원)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신규 구성에 따른 운영비 편성(4백만원)
대외협력 기금 (국내협력) 전출금	3,200	1,500	△1,700	·코로나로 행사 축소 및 온라인 전환으로 예치금 수입금 증가 전망 등으로 인해 감액편성
기관운영 경비	3,550	3,027	△523	·최근 3개년('18~'20) 집행실적 고려 및 코로나19로 지출감소가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감액	감액사유
				예상되어 감액 편성
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	117,449	89,100	△28,349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감소에 따른 전출금 감액 편성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107	75	△32	·특정업무경비 세부사업변경 (지방재정투자심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재정민주주의프로세스도입	10	0	△10	·사업 목적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및 예산담당관의 사업(숙의예산공론장,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등)과 중복되어, 사업 종료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226,174	191,173	△35,001	·행정안전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추계액 ·'20회계연도 결산 전으로 순세계 잉여금 미산정, '21년 추경편성 예정
노사정서울협의회분담금	263	219	△44	·노사정협회 20주년 기념(1회성) 사업종료
투자, 출자출연기관소통협력강화	46	23	△23	·코로나19로 회의, 행사 개최 감소 - 현안회의 20회 →10회 △3 - 워크숍(2회 →1회) △7.5 - 노동이사자 워크숍 △12
자매도시교류	333	219	△114	·코로나19로 해외출장 및 교류감소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102백만원 감액 ·민간인국외여비 12백만원 전액삭감
시도지사협의회국제화참여분담금	580	550	△30	·의무경비로 정액분담금(4억) 및 시도지사협의회 내년도 특별분담금 예상액(공문) 반영하여 감액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전출금	3,300	1,000	△2,300	·코로나19로 국제교류 감소를 고려해 등을 최소 금액 편성
우수정책해외진출전담조직운영	1,077	970	△107	·예산담당관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으로 전년대비 10% 감액

(2)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1,900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63%(1,838억 2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세출은 도시계획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은 예비비와 기금상환 등을 총괄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비 없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전출금 1,892억 7천 2백만원, 예비비 7억 5천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기획조정실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예산 (A)	2021 예산(안) (B)	증감	
				B-A	%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6,203	190,023	183,820	2,963.4
	재무활동	6,072	189,272	183,200	3,017.1
	예비비	131	751	620	473.3

- 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각종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세출 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조정실은 예비비로 18억 3천 3백만원만을 편성하였음.

3. 주요사업별 검토

가.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별설명서 p.61>

-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예산으로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정시책연구용역 >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086,600	2,086,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00 ■ 연구용역비 2,080,000

- 시정주요정책의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여야 함.
- 그러나 회계연도 중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정시책연구용역비로 대응하고 있음.
 - 이 경우 학술용역이 필요한 부서에서 시정시책연구용역비를 조직담당관에 신청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학술용역심의를 거친 후 학술용역사업비를 신청부서로 재배정하는 절차로 진행됨.

- 이 사업은 2018년 13억 5천 7백만원에서 2019년 21억 3천 7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0년 20억 8천 7백만원으로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용률 또한 3~4%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시정시책연구용역 >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1,356,600	2,136,600	2,086,600
이월액	541,410 (39.91%)	855,521 (40.04%)	1,200,590 (57.54%)
불용액	64,999 (4.79%)	76,821 (3.60%)	41,283 (1.98%)
학술용역 수행건수	23건	39건	27건
학술용역 이월건수	11건	17건	13건 (계약전 6건 별도)

- 그러나, 학술용역 과제가 다음연도에 종료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월액이 확대되고 있어, 시정시책연구용역에 선정된 학술용역 과제들이 과연 긴급성과 중요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 특히, 2019년에는 12월에 착수하는 학술용역이 5건이나 선정되어 불용률을 낮추려고 긴급성, 중요성이 부족한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이처럼 이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의 규모에 따라 학술용역 과제의 수요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인 20억 8천 7백만원이 사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술용역 과제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학술용역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학술용역 과제의 분석을 통해 긴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나.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p.75>

- 소속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유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천 3백만원이 감액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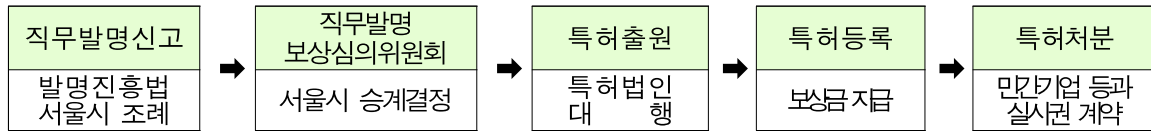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82,640	119,780	△62,860	■ 사무관리비	87,280
			■ 포상금	32,500

- 이 사업은 직무발명 및 공무원 발명자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거쳐 승계 결정된 발명의 특허출원, 특허권의 처분수입에 대한 보상의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직무발명 지원 절차>



- 특허승계를 결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특허보상금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처분보상금(특허로 발생한 수입 50%)을 지급함.
- 그러나 최근 들어 특허 등의 승계사례는 증가는 반면에 직무발명 지식 재산권 처분 및 실시료 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

(2020.10.1. 기준, 단위 : 건)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90	82	7	1	57	53	3	1	24
2020.10	27	26	1	0	22	22	0	0	5
2019	31	30	0	1	17	16	0	1	10
2018	32	26	6	0	18	15	3	0	9

< 연도별 직무발명 처분 현황 >

(2020.10.1. 기준, 단위 : 건)

연도	처분 현황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시료(천원)
계	81	61	5	15	67,681
2020.10	14	9	3	2	18,364
2019	37	30	1	6	32,414
2018	30	22	1	7	16,903

주1) 처 분: 시유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 건수 / 실시료: 시유 지식재산권 사용료

주2) 실시료 발생 정산 건수를 기준으로 함

- 이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계획’ 을 수립해(2020.6) 등록 보상금 지급 확대, 인사상 특전 근거 마련 등의 보상방안을 도입하였음.

< 등록보상금 지급 상황 >

(단위: 만원)

구 분	현 재	개 선
등록보상금	특허 100, 실용신안 50, 디자인 30	특허 200, 실용신안 100, 디자인 60
처분보상금	처분수입의 100분의 50	좌동

- 또한, 직무발명 제도의 홍보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 설명회 개최, 특허 처분 공고 확대 등을 실시하고 발명진흥회와 연계를 통한 시유평특허 수요 기업을 발굴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하지만, 2021년 예산안에서는 특허 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명비용 지원 1천 1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6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개선계획에 근거하여 등록보상금 지급을 높이고 직무발명 제도 홍보를 강화하면서 특허 신청 수요의 감소로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합리적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가 높은 발명과 특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유 재산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임.

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별설명서 p.79>

- 지방분권 홍보활성화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시민 인식 전환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 전년대비 1억 8천 만원이 감액된 2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분권 과제 등의 자문을 위한 지방분권협의회 운영(1천만원), 지방분권 홍보를 위한 동영상·자료집 제작·서포터즈 운영(5천만원),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콘텐츠 개발(2억 1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461,500	281,500	△180,000	■ 사무관리비 28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방분권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2018년 3월 발의)이 국회 처리시한의 경과로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지방분권 실현이 담보 상태에 있음.
- 이처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문화에 익숙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 역시 중요함을 볼 수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017년에 지방분권 토크쇼, 2018년에 전국지방분권 협의회 서울회의, 찾아가는 지방분권 토론회, 2019년에 서울자치분권 릴레이특강 등을 비롯해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음.
- 하지만, 2020년 본예산 6억 5천 1백만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4천 2백만원으로 감추경되었고, 2021년 예산안은 더욱 감액된 2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지방분권 실현을 목전에 둔 시점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 토론회 등의 집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형식적인 콘텐츠 제작보다 전문가와 유명인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등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의 다각화가 요구됨.

라. 시민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운영

<사업별설명서 p.155>

-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권의 구제 강화와 각종 분쟁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천 9백만원이 감액된 7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806,190	746,775	△59,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41,43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 기타보상금 699,540

-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 설치 이후 모든 행정동(424개)마다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실, 공익법무사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마을변호사들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만족도가 올라갔으나, 여전히 법률상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심각 단계가 지속되자 대면상담이 어려워져 법률상담서비스의 이용이 저하되었으나, 마을변호사는 전화상담을 허용하면서 8월부터 전년수준 이상으로 실적을 회복하였음.

< 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월별 상담 실적 >

(' 20.9월말 현재)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11,320	1,096	1,261	1,176	1,061	1,082	1,348	1,361	1,467	1,468			
2019	15,815	1,033	979	1,180	1,425	1,474	1,392	1,414	1,458	1,359	1,452	1,333	1,316
2018	14,606	971	1,139	1,458	1,522	1,238	1,130	1,241	1,160	1,075	1,199	1,295	1,178

- 한편,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폐쇄 등으로 작년과 비교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2천 7백만원 감소되었음 (2020년 43,200천원 → 2021년 16,200천원).

< 공익법무사 상담실적(2019~2020년) >

구 분	총 누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기타	
2020.9월	119	81	41	40	-	38
2019년	1,029	353	93	247	13	676

-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 폐쇄 등으로 법률적 지식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대면 심층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므로 비대면 원격 상담시스템의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마. 서울연구원 출연사업

<사업별설명서 p.91>

-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책과제를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2021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백만원이 증액(0.02%)된 315억 5천 4백 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출연금은 연구원의 일반사업계정의 총 지출 소요액 중 자체수입
충당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출연하고 있음.

< 서울연구원 출연사업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31,548	31,554	6	■ 출연금 31,554

(1) 2021년 수입·지출 계획

- 연구원의 2021년 수입·지출 총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439억 8천 9백
만원 대비 9억 4천 4백만원(2.1%)이 증액되었음.
- 수입은 ▶일반사업계정 369억 3천 3백만원 ▶수탁사업계정 80억이며,
일반사업계정은 서울시 출연금 315억 5천 4백만원, 기본재산 16억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1천 9백만원, 수탁사업비 계정전입금 14억 8천
만원을 등으로 구성되었음.

< 2021년도 서울연구원의 수입·지출명세서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예산과목	2021년 (안)	2020년 (2차추경)	증감률	예산과목	2021년 (안)	2020년 (2차추경)	증감률
계	44,933	43,989	2.1	계	44,932	43,989	2.1
1. 일반사업계정	36,933	36,189	2.1	1. 일반사업계정	36,933	36,189	2.1
가. 출연금	31,554	31,548	0.02	가. 연구사업비	8,728	9,350	△6.6
나. 자체수입	5,379	4,641	15.9	나. 경영사업비	7,610	6,328	20.3
수탁사업비 계정전입금	1,480	1,650	△10.3	다. 인건비	20,244	20,113	0.7
출판물 판매수입	30	30	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250	250	0	라. 예비비	349	398	△12.2
기본재산 전입	1,600	0	순증				
이월금	2,019	2,711	△25.5				
2.수탁사업계정	8,000	7,800	2.6	2.수탁사업계정	8,000	7,800	6.0
가. 수탁사업비	8,000	7,800	2.6	가. 수탁연구비	6,520	6,150	6.0
				나. 계정전출금	1,480	1,650	△10.3

- 연구원의 자체수입금은 전년대비 7억 3천 8백만원(15.9%) 증가하였으나, 기본재산으로 적립금(55억 8천만원)을 새로 전입하면서 16억원이 순증한 것에 기인함.
- 연구원의 수입구조를 보면 총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자체수입원을 확충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지출은 일반사업계정에서 ▶인건비 202억 4천 4백만원, ▶연구사업비 87억 2천 8백만원 ▶경영사업비 76억 1천만원임.
- 주요 증액사항은 경영사업비 12억 8천 2백만원(20.3%), 인건비 1억 3천 1백만원(0.7%), 수탁연구비 3억 7천만원(6.0%) 등에서 총 16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사항은 ▶연구사업비 △6억 2천 1백만원(6.6%), ▶예비비 △4천 8백만원(12.2%) 등에서 총 6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1년 지출에서는 연구사업비를 감액하고 경영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어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전망이다.

(2) 구정연구단 연구지원

- 연구원은 ‘자치구 구정연구단’ 을 지원하기 위해 구정연구지원센터(이하 “구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억 3백만원이 증액된 32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구정연구단 연구지원 >

(단위 : 백만원)

2019예산	2020예산(A) (당초)	2021예산안(B)	증감(B-A)	(B-A)/A*100
1,540	2,933	3,236	303	10.3%

구 분	2019예산	2020예산(A)	2021예산안(B)	증감(B-A)
구정연구단 연구지원	1,540	2,933	3,235	303
기간제직보수	1,026	2134	2,264	130
복리후생비	217	360	377	17
퇴직급여	118	199	217	18
성과급	0	212	273	61
교육훈련비	0	28	0	순감
회의운영비	0	0	72	72
도서인쇄비	0	0	32	32

- 증액사유는 전년 대비 구정센터 직원(총 50명)의 기간제직 보수 연봉급 인상분과 제수당 등이 추가된 점에 기인함.
- 구정연구단은 2019년 설치 이후부터 관리감독 주체의 모호성, 자치구와 구정센터 소속 직원간의 상이한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잦은 이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21년도 연구원 출연동의안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문제로 구정연구단 관련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음.
- 이후 ‘구정지원단 근로자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아닌 사외파견(전출)으로 본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2020.8.14.)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해소되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구정연구단 예산을 편성하였음.
- 한편 구정연구단은 2021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인 바, 자치구간 재정력의 차이로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구정연구단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이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따라서 구정연구단의 존속과 소속 연구원 보호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구정연구단 연구원을 직접 고용해 자치구로 파견하거나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자치구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 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청사운영 관리

- 연구원은 ‘청사운영’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9억 6천 8백만원(115.8%)이 증액된 18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증액사유는 ▶ 임차청사 집기가구(1억 3천 7백만원) 등 자산취득비 4억 9천 3백만원, ▶ 신규임차청사 보증금과 임차료 3억 2천 3백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등 3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청사 운영 >

(단위 : 백만원)

2019예산	2020예산(A)	2021예산안(B)	증감(B-A)	(B-A)/A*100
454	836	1,804	968	115.8%

구분	2019예산 (당초)	2020예산(A) (감추경 후)	2021예산안(B) (당초)	증감(B-A)
청사운영	454	836	1,804	968
청사 공사 및 유지 관리	260	604	982	378

- 연구원은 현 청사 입주 당시인 2003년에는 직원 수 199명에 113개 연구과제를 시행하는 규모였지만, 현재는 총 319명이 근무하고 있어 청사 임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근무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정규직 박사 연구원의 연구실(1인실)에 2인을 중복 배정하고 있고, 또한 교육공간(공용전산)에 연구원을 배정하여 근무토록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연구원은 공간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공간 유상임차 계획을 세우고 연구원과 시청 인근 등에 임차 검토를 실시하고 내년에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임차와 공간 구성을 마무리 할 예정임.

- 현 청사의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으나, 연구원의 강북

이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매물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임차공간과 물품 및 자산취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바. 서울시립대학교 출연사업

〈사업별설명서 p.84〉

-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1천 3백만원(△5.0%)이 감액된 631억 2천 1백만원임.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66,433,988	63,120,986	△3,313,002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비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지원 시설확충비(재무과·시설과 43억 7천 6백만원), 연구기관지원 사업(8억), 도서관 운영지원(3억 7천 2백만원) 등 3개 사업에서 감액되었고, 정보화 운영지원(21억 1천 7백만원), 입시 전형관리(6천 9백만원), 기관 공동운영(총무과·시설과 4억 8천 1백만원) 등 8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음.

〈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안 세부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0 최종예산	2021 예산안	증 감	%
합 계		66,433,988	63,120,986	△3,313,002	△5.0
후생복지지원 (인권센터)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197,226	194,188	△3,038	△1.5
비전임교원 인건비	연구보조비, 외래 강사료	8,101,859	7,969,146	△132,713	△1.6

사업명	사업내용	2020 최종예산	2021 예산안	증 감	%
(교무과)	전임교원 초과 강사료 등				
교직원복지 지원 (교무과)	전임교원, 조교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051,300	1,061,650	10,350	1.0
강의실여건개선 (교무과)	스마트 강의실 구축	400,000	300,000	△100,000	△25.0
입시전형 관리 (입학관리과)	원서 접수 및 시험 관리 등	923,100	992,100	69,000	7.5
학생 모집 (입학관리과)	입학홍보대사 박람회 개최 등 학생모집 홍보	239,700	229,200	△10,500	△4.4
입학 및 졸업지원 (입학관리과)	입학식 등 지원	48,600	48,600	0	0.0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입학관리과)	입학사정관제 운영비 등	297,686	295,596	△2,090	△0.7
장학금 지원 (학생과)	생활장학금 및 글로벌 리더 장학금 등	1,300,000	1,300,000	0	0.0
교육협력관리 (학생과)	사람책 선발 및 대어 (휴먼라이브러리 사업)	85,900	80,320	△5,580	△6.5
학술연구지원 (연구지원과)	R&D기반조성사업	1,265,910	1,266,585	675	0.1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연구지원과)	교육·연구용 실험실습 기자재, 첨단장비 구입 등	4,554,274	4,460,414	△93,860	△2.1
직장어린이집 운영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8개반 65명 보육	496,977	505,426	8,449	1.7
기관 공동운영 (총무과)	청소·경비 촉탁직 인건비, 공공요금 납부 등	5,074,175	5,477,955	403,780	8.0
서울시지원 시설 확충비 (재무과)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등	494,722	529,122	34,400	7.0
서울시지원 시설 확충비 (시설과)	미래융합관 건립, 교내 노후 교육시설 개보수, 교육환경 개선 등	21,780,591	17,370,620	△4,409,971	△20.2
기관 공동운영 (시설과)	건축, 전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	7,260,105	7,336,915	76,810	1.1
특색교육과정 운영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영미권 행정대학원의 서울시정사례연구 교과목 운영 지원	106,220	91,995	△14,225	△13.4
도서관 운영지원 (사서과)	우수학술도서 및 전자 학술정보자료 확충 등	3,976,440	3,604,616	△371,824	△9.4
정보화 운영지원 (전산정보과)	차세대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5,341,431	7,458,047	2,116,616	39.6

사업명	사업내용	2020 최종예산	2021 예산안	증 감	%
	노후장비 교체 등				
교육협력관리 (평생교육원)	시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원 운영	215,704	215,704	0	0.0
취업 및 창업 지원 (창업지원단)	세운·용산캠퍼스 등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258,490	258,490	0	0.0
현장실습지원 (창업지원단)	세운캠퍼스 작품 제작 지원 및 전시, 학생 현장실습 지원 등	77,600	77,600	0	0.0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시과학연구원)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에 도시관련 전공자 파견, 서울시의 도시정책 우수사례 전파	459,716	414,185	△45,531	△9.9
교육협력관리 (사회과학연구소)	상생협력센터 운영지원	211,370	206,470	△4,900	△2.3
학술연구지원 (서울학연구소)	서울시립대·평양과기대 공동협력 연구교류사업	115,000	115,000	0	0.0
연구기관지원 (도시과학빅데이터 SI연구소)	빅데이터 센터 운영지원	0	1,261,042	1,261,042	(이관 편성)
연구기관지원 (연구지원과)	빅데이터 센터 운영지원	2,099,892	0	△2,099,892	(이관 편성)

(1) 서울시지원 시설확충비 (시설과)

<시립대사업별설명서 p.86>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첨단복합공간 조성
교내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억 9백만원(20.2%) 감액된 173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1년도 서울시지원 시설확충비(시설과) 사업 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21,780,591	21,780,591	17,370,620	△4,409,971	△20.2
일반수용비	224,515	224,515	56,000	△168,515	△75.1
실시설계비	275,920	275,920	708,227	432,307	156.7
공사비	20,335,780	20,335,780	15,491,955	△4,843,825	△23.8
감리비	926,376	926,376	1,096,438	170,062	18.4
시설부대비	18,000	18,000	18,000	0	0.0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3종 시설물 정기안전관리 용역비(5천 6백만원), ▶ 학생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3억 4천 3백만원), ▶ 건설공학과 증축 공사 완공 등에 따른 공사비(△48억 4천 3백만원), ▶ 미래융합관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과 및 소규모 공사 실시에 따른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위한 감리비(1억 7천만원) 등임.
- 이 중 3종 시설물⁴⁾ 정기안전관리 대상에는, 15년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이 해당되는데 시립대는 1937년 준공된 경농관을 비롯하여 18개 건물이 의무관리대상 시설물인 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음.

<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대상 3종 시설물 >

연번	시설물명	안전등급	연면적(m ²)	층수	준공일자
1	경농관	-	1,259.50	지상1층	1937-05-10
2	전농관	-	3,952.47	지하1층/지상3층	1974-10-25
3	배봉관	-	3,969.48	지하1층/지상4층	1977-08-31
4	건설공학과	B	8,078.20	지하1층/지상5층	1978-12-31
5	대강당	-	2,983.70	지하1층/지상2층	1981-06-22

4) 3종 시설물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함.

연번	시설물명	안전등급	연면적(m ²)	층수	준공일자
6	창공관	B	6,100.84	지하1층/지상4층	1982-09-30
7	학생회관	B	7,910.15	지하1층/지상3층	1983-11-21
8	인문학관	B	6,520.65	지상4층	1984-12-28
9	중앙도서관	B	12,555.79	지상5층	1987-12-31
10	본관	B	7,987.38	지하1층/지상8층	1990-08-31
11	제2공학관	B	7,201.23	지하2층/지상5층	1994-03-26
12	자동화온실	-	1,140.80	지하1층/지상1층	1997-02-19
13	자연과학관	B	6,843.71	지하1층/지상5층	1997-12-20
14	언무관	-	2,002.26	지하1층/지상4층	1999-05-15
15	과학기술관	B	9,677.34	지하1층/지상6층	1999-12-28
16	21세기관	B	15,522.11	지하1층/지상7층	2001-09-27
17	조형관	B	8,074.12	지하2층/지상7층	2004-04-30
18	생활관	-	9,298.37	지하2층/지상7층	2006-06-30

- 한편 ‘미래융합관’ 건립 사업은 이공계학부의 교육 연구와 실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0’에 따라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임.
- 당초 기본계획(2017.6)에서는 총 사업비가 309억 8천 2백만원으로 예상되었으나⁵⁾, 건립계획 변경(2018.6.)을 거치면서 391억 2천 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향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사업변경과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정된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5) 해당 부지의 공유재산 가격(62억 9백만원)은 제외한 것임.

<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 연도별 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9,123	718	1,484	9,315	8,172	19,434
이전비	224	0	0	224	0	0
실시설계비	1,838	664	1,174	0	0	0
공사비	33,584	0	0	8,377	7,200	18,007
감리비	3,051	44	300	696	804	1,207
시설부대비 (기타용역비)	426	10	10	18	168	220

(2) 정보화 운영지원

<시립대사업별설명서 p.125>

- 대학의 노후 IT플랫폼인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대학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21억 1천 6백원 (39.6%) 증가된 74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택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량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시립대 1학기 강좌의 68%가 비대면 수업으로 실시되면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음.
- 대학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학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에는 기여하게 됨.

- 다만, 서버와 상용 소프트웨어 구축은 제품모델 선정부터 입찰, 계약, 납품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구매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구매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연구기관 지원

〈시립대사업별설명서 p.167〉

- 올해 6월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이하 “AI연구소”)를 신설에 따라 글로벌 역량 강화와 융합역량을 갖춘 핵심연구인력을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22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AI연구소는 시립대의 미래 발전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정책실현을 위한 것으로, 빅데이터와 AI 관련 연구 전담기구의 신설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연초 예정되어 있는 센터 사무실이 대학본부 지하1층 대강당과 로비공간, 문서고(본관 B105호)에 들어설 예정에 있어, 향후 시스템 안정유지·관리에 필수적인 향온·향습·향진 환경을 충분히 구축해야 할 것임.

(4) 특색교육과정의 집행부진

- 도시과학연구원과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특색교육과정 사업은 코로나

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축소되었음.

- 특히 서울시와 우호도시 간 실질적 교류 증진을 위한 도시과학연구원의 특색도시교육과정은 △4천 5백만원(9.9%) 감소된 4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들 사업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도 사업의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집행을 85% 미만 부진 사업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 예상액	불용률	
특색교육과정 운영 (도시과학연구 원)	-	-	-	359,716	309,935	86.2	414,185
특색교육과정 운영 (국제도시과학 대학원)	298,612	60,497	20.3	4,620	4,320	93.5	91,995

사.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사업별설명서 p.218>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2010년부터 출연 중이며, 전년대비 350억

1백만원 감소한 1,911억 7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18년 2,000억 1천 5백만원, 2019년 2,097억 2천 1백만원, 2020년 2,014억 8천 9백만원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26,174	191,173	△35,001	■ 출연금 191,173

- 예산이 대폭 감소된 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방소비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수가 감소⁶⁾해 지방소비세 안분액이 줄었기 때문임.

< 기금 출연금 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begin{array}{|c|} \hline \text{지방소비세} \\ \hline 10\% \text{ 인상분}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균특회계} \\ \hline \text{사업이양 보전}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자치구, 교육청} \\ \hline \text{전출금 보전액}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서울시} \\ \hline \text{안분율}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기금 출연} \\ \hline \text{대상} \\ \hline \text{지방소비세} \\ \hline \end{array}$$

-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비수도권 지방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기금의 유지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기금의 조성 당시부터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문제⁷⁾와

6) 2020년도 9월말 기준 부가가치세는 47조 7천억원으로 전년동기(52조) 대비 4조 3천억원 감소 (한국세정신문. 11.10.).

배분시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기금 출연기한을 10년 더 연장한 만큼 수도권 외 지방의 일방적인 출연과 비수도권 중심의 배분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는 1조 9,703억원, 인천시는 3,985억원, 경기도는 1조 8,804원을 각각 출연하였으나, 재정지원은 각각 1,139억원, 840억원, 1,149억원에 불과해 안분상의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와 일부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 방식,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적정한 기금의 조성규모와 출연 비율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지원이나 용자 등 실질적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사업의 명확한 관리와 사업운영의 효율화가 요구됨.

7) 현재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1%로 구성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 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광역시, 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음.

아. 예비비의 편성

- 서울시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년대비 407억 1천 6백만원 증액(27.5%)된 1,887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 중, 일반예비비는 1,687억 5천 3백만원이며, 이와 별도로 재해·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음.

< 예비비 편성안 >

(단위 : 백만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48,037	188,753	40,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예비비 168,753 ■ 목적예비비 200,00

-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함.⁸⁾
- 2021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27조 6,658억원으로 1% 범위(2,766억 5천 8백만원 이내)에서 예비비가 편성되었고, 이는 전년대비 27.5%(407억 1천 6백만원)가 증액된 규모임.

8)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올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86억 4천 6백만원 증액된 예비비 1,480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음.
- 2021년도 예산편성은 ▶서울형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 등 3대 분야에 집중하면서 일반 사업비의 경상비마저도 삭감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사용처가 미리 지정되지 않고 집행내역 없이 총액으로 계상되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은 지양되어야 함.

자. 민간위탁제도의 운영

- 서울시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1억 4백만원이 증액된 8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민간위탁 운영 >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778,000	879,400	104,400	■ 사무관리비	874,900
			■ 시책업무추진비	4,500

- 현재 서울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397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연간 9,415억원(2020년 9월말)에 달하고 있음.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

(’20.9월말 기준, 건/억원)

계		예산지원형						자립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97	9,415	375	9,342	270	7,768	105	1,574	22	73

- 예산 증액분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증가(8명→ 11명, 3천 6백만원) 통합회계감사 대상 증가(228개→280개, 5억 8천 8백만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대상 사무 증가(38개→ 45개, 2억 4천 8백만원)에 따른 것임.
- 내년부터는 그 동안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⁹⁾ 하였으나, 용역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계획임.
- 하지만,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잦은 변경으로 평가의 연속성과 신뢰성 저하 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평가를 시행하여도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9) 2015년부터 실시되어 시민의 만족도,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등 수탁사무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어 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의 효율적인 심사에도 기여한 바가 있음. 반면에 수행 분야와 성격이 다양한 수탁기관을 불가피하게 개량평가를 실시하면서 경직된 평가지표와 형식적인 평가결과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수탁기관 위주의 평가를 통해 사실상 민간위탁 사무의 영속화에도 영향을 주었음.

차.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 2021년에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상환하는 예산은 1,785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91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	
예수금원금상환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111,668,354
	일반회계	55,834,177
예수금이자상환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7,703,810
	일반회계	3,355,000
	합계	178,561,341

- 서울시는 버스준공영 제도의 확대 등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2015년 일반회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의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예수금)을 부담해주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재원으로 현재까지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원리금 477억 7천 2백만원을 상환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약정 시작일	약정 종료일	예탁금	기상환액	'20년말 예탁금 잔액	비고
		계	1,015,800	47,772	968,028	
1	'08. 12. 31.	'18. 12. 15.	276,000	47,772	228,228	일반회계 (668,528)

2	'11. 12. 29.	'21. 12. 15.	292,000	-	292,000	교통정책과 (307,100)
3	'12. 12. 15.	'17. 12. 15.	148,300	-	148,300	
4	'19. 12. 16.	'29. 12. 15.	158,800	-	158,800	
5	'20. 12. 16.	예탁 예정	140,700	-	140,700	

- 재정이 취약한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의 지원을 위해 일반 회계의 여유자원을 활용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지원하는 취지는 이해됨.
- 그러나,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주체인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 지원 형태가 아니라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구분 원칙을 무너뜨리고 회계의 채무비율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따라서,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의 재정투융자기금 중 일반 회계 부담분에 대해서는 왜곡된 회계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금을 전출하고 해당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을 직접 상환토록 하는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IV. 기금 검토보고

1. 기금 총괄

- 2021년도 서울시 기금운용 규모는 18개 기금(25계정)에 2조 364억 3천 3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4조 5,050억 7천 4백만원보다 △54.8%(△2조 4,676억 4천 1백만원) 감액된 규모임.

< 2021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B)	2020년도(A)	증감	
			B-A	%
18개 기금 (25개 계정)	2,036,433	4,505,074	△2,467,641	△54.8

- 이 중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5개 계정)에 9,248억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2.0% 감소하였음.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	
			B-A	%
계	1,927,752	924,801	△1,002,951	△52.0
재 정 투 융 자 기 금	1,123,022	746,309	△376,713	△33.5
감 채 기 금	788,314	164,575	△623,739	△79.1
대외협력기금	국 내 계 정	4,760	△2,198	△31.6
	국 제 계 정	2,461	△5,822	△70.3
지 역 개 발 기 금	1,175	6,696	5,521	469.9

-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조 8,865억 9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328억 2천 9백만원(4.6%) 증액되었음.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계	2,753,770	386,652	253,823	2,886,599	132,829
재정투융자기금	2,156,298	373,432	106,009	2,423,721	267,422
감채기금	582,809	9,966	143,789	448,986	△133,823
대외협력 기금	국내계정	3,204	1,556	2,605	△599
	국제계정	5,380	1,081	4,591	△789
지역개발기금	6,079	617	0	6,696	617

2. 재정투융자기금

가. 개요 및 조성

-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설치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으로 운용될 계획임.

- 재정투융자기금은 18개 기금의 전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지방채 상환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조 4,237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4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1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백만원)

2020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2,156,298	373,432	106,009	267,422	2,423,721

※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원금 회수, 지출에서 예치금과 예탁금은 각각 제외됨.

나. 수입 및 지출

-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 및 지출 운용 규모는 7,463억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767억 1천 3백만원(33.5%)가 감소하였음.

(1) 수입계획

- 수입내용을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 등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3,207억 3천 1백만원,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504억 5천 5백만원 ▶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224억 2천 2백만원, ▶ 예수금 수입 244억 1천 8백만원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82억 8천 3백만원임.

- 수입의 증감내역은 ▶용자금 회수에서 817억 2천 7백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에서 933억 6천6백만원, ▶이자수입 40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치금 회수에서 △232억 5천 1백만원, ▶예수금 △5,326억 1천 2백만원이 각각 감소했음.

< 2021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계획 >

(단위 : 백만원)

항 목	수 입		계 획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746,309	1,123,022	△376,713	
용자금 회수(이자포함)	320,731	239,004	81,727	
예탁금 원금회수	250,455	157,089	93,366	
예치금 회수	122,422	145,673	△23,251	
예수금	24,418	557,030	△532,612	
이자수입	28,283	24,226	4,057	

(2) 지출계획

-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규모는 7,463억 9백만원으로, 예탁금 2,328억원, 예치금 4,075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060억 6백만원 등이며, 예탁금 △3,243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374억 9천 2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2,850억 7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예탁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에 1,878억원, 중소기업육성

기금(투자계정)에 450억원을 각각 용자 지원할 계획임.

-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축진계정)에 16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에 17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분담금계정)에 22억원,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400억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기금(주민지원계정) 20억원, 지역개발기금 49억원, 식품진흥기금 55억원 등 예수금 원금 897억원과 이자 163억 6백만원임.
- 이 밖에 여유자금 4,075억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임.

< 2021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지출 계획 >

(단위 : 백만원)

지 항 목	출 계 획			증감사유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746,309	1,123,022	△376,713	
기본경비	3	2	1	
용 자 금	0	300,000	△300,000	- 교통공사 용자금 감소 △300,000
예 탁 금	232,800	557,100	△324,300	- 기금 및 특별회계 용자지원 ·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 187,80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5,000백만원
예 치 금	407,500	122,422	285,078	- 여유자금 예치 407,500백만원
예 수 금 원리금상환	106,006	143,498	△37,492	-예수금 원금 상환 · 주택사업(특) 재정비축진계정 16,000백만원 · 교통사업(특) 주차장관리계정 17,500백만원 ·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백만원 ·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40,000백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000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4,900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5,500백만원 · 성평등기금 600백만원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000백만원 -예수금 이자 상환 16,306백만원

다. 검토의견

- 재정투융자기금은 2015년까지 13조 5,344억 3천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매년 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 잔액은 2015년도 2조 6,655억 7천 6백만원에서 2021년도 2조 4,237억 2천만원으로 6년간 2,418억 5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종 사업이 축소·폐지됨에 따라 기금 잔액이 대폭 증가되었음.
- 또한, 2021년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융자금 감소와 올해 코로나 19 등으로 추경에 편성했던 일반회계 예탁금이 대폭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집행액이 축소되어 기금의 집행 잔액이 증가되었음.

< 연도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a)	집행액(b)	잔액(a-b)
2015년까지	13,534,430,902	10,868,854,530	2,665,576,372
2016년도	170,513,663	260,082,852	-89,569,189
2017년도	131,880,052	361,076,578	-229,196,526
2018년도	302,112,130	334,774,798	-32,662,668
2019년도	117,586,625	652,196,208	-534,609,583
2020년도	820,259,700	443,499,697	376,760,003
2021년도	373,431,892	106,009,489	267,422,403
계	15,450,214,964	13,026,494,152	2,423,720,812

- 재정투융자기금의 용도가 도시기반시설의 조성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 등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출금액에 54.6%인 4,075억원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재정투융자기금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기 회복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임.

3. 감채기금

가. 개요 및 조성

- 감채기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운용될 계획임.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등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489억 8천 6백만원임.

< 2021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582,808,978	9,966,033	143,788,800	△133,822,767	448,986,211

-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나. 수입 및 지출

- 감채기금의 수입 규모는 1,645억 7천 5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546억 9백만원, 공공예금과 예탁금의 이자수입 99억 6천 6백만원임.
- 예치금 회수 수입은 전년대비 △2,715억 5천만원, 이자수입이 △12억 2백만원, 전입금은 △3,509억 8천 8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 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미반영된 것임.

< 2020년도 감채기금 수입 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64,575,011	788,314,473	△623,739,462
전 입 금	0	350,987,800	△350,987,800
예치금회수	154,608,978	426,158,673	△271,549,695
이자수입	9,966,033	11,168,000	△1,201,967

- 지출은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에 1,2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창출 및 공공자금관리 기금 등의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233억 6천 9백만원, 예치금 207억 8천 6백만원, 2021년 모집공채 발생 수수료를 반영한 기본경비에 4억 2천만원임.

< 2020년도 감채기금 지출 계획 >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증감사유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64,575	788,314	△623,739	
기본경비	420	715	△295	'21년 모집공채 발행수수료 반영
예치금	20,786	154,608	△133,822	예치금 회수 감소
예탁금	0	428,200	△428,200	'20년 여유자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예수금 원리금 상환	0	90,788	△90,788	'20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전액상환
기타회계 전출금	120,000	0	120,000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
출자금	0	42,600	△42,600	'20년 에너지공사 채무상환을 위한 출자 집행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23,369	71,403	△48,034	'19년~'21년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

-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¹⁰⁾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가 2020년 10월 현재, 15조 8,641억원으로, 2017년 이후 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2021년에 지방채 2조 5,882억원 규모¹¹⁾를 발행할 경우 채무 규모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효율적인 채무관리와 함께 세출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0)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11) 2021 ~ 202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10) “지방채 발행계획” 33p

<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현황(2016-2020) >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10
계	122,297	113,753	121,147	135,341	158,641
서울시	34,770	37,451	38,356	55,713	72,459
투자기관	87,527	76,302	82,791	79,628	86,182
주택도시공사	59,334	47,007	49,258	50,418	50,013
교통공사	26,407	27,285	31,313	26,744	34,862
농수산공사	1,226	1,249	1,270	1,249	518
에너지공사	560	761	950	1,217	789

4.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이하 “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되는 국내협력계정은 서울시내 자치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등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내협력계정의 2021년말 조성액은 26억 6백만원임.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3,204,719	1,555,864	2,154,964	△599,100	2,605,619

2. 수입 및 지출

-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액은 47억 6천만원임.
- 수입은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억원, ▶ 예탁금 원금회수 10억원,
▶ 예치금회수 22억 5백만원 ▶ 이자수입 5천 6백만원임.
- 지출은 ▶ 고유사업비인 비융자성사업비에 21억 5천 2백만원, ▶ 시금고
예치금 26억 6백만원, ▶ 기본경비 3백만원임.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760,583	6,958,719	△2,198,136	합 계	4,760,583	6,958,719	△2,198,136
전입금	1,500,000	3,200,000	△1,700,000	비용자성 사업비	2,151,964	3,751,000	△1,599,036
예탁금 원금회수	1,000,000	0	1,000,000	기본경비	3,000	3,000	0
예치금 회수	2,204,719	3,700,351	△1,495,632	예탁금	0	1,000,000	1,000,000
이자수입	55,864	58,368	△2,504	예치금	2,605,619	2,204,719	400,900

- 지방분권 확대와 시정컨설팅 등으로 문화·경제·관광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간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협력계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할 전망이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과 함께 안정화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외에 다른 목적 사업들은 대부분 일반회계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운용성과가 확인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함.

다. 주요사업

- 국내협력계정의 8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2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	사업성격
-----	-----	----------	-------------	----	------

기금명	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	사업성격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상품 개발운영	300	150	△150	계속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450	225	△225	계속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500	1,000	△500	계속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440	300	△140	계속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610	296	△314	계속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	11	△11	계속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58	100	△158	계속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70	70	0	계속
소	계	3,650	2,152	△1,498	

(1)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사업별설명서 p.354>

-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교류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대비 2억 2천 5백원 감액(50%)된 2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함.

< 2021년도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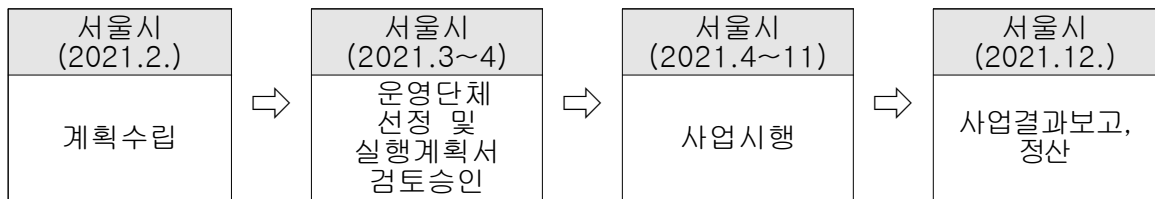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사업	450,000	225,000	△2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사업보조 225,000

- 이 사업은 지역청소년에게는 서울 역사교육현장 탐방, 청소년 창의문화 활동, 스포츠 경기관람을 지원하고, 서울청소년은 지역 역사문화체험, 농어촌 체험 등 지역 탐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교류 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청소년에게 양 지역 간 문화 이해 능력, 소통능력, 책임감에 대한 이해 등을 길러주고, 청소년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2021년도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추진일정 >



-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교류 수요 감소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지되었음.
-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중단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 예산의 집행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추가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사업별설명서 p.368>

- 서울시 혁신정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전파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1천 4백만원 감액된 2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도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내역 >

(단위 : 천원)

2020예산	2021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610,000	295,964	△314,036	■ 행사운영비 295,964

- 이 사업은 서울 혁신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과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를 지역수요에 맞게 전파하고자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혁신로드’ 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은 내년도 사업 참여인원 규모를 15명 이내 100팀, 7개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2020년도 10월 현재 44개팀 445명, 5개 지자체에 그치고 있어 2021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또한 ‘찾아가는 혁신로드’ 는 2019년도 하반기 사업시행 후 혁신 자문관이 파견되어 컨설팅을 받은 사례가 7회에 불과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추진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정책연수 참여 인원 목표와 정책컨설팅 수요를 과도하게 산정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5.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가. 개요 및 조성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이하 “국제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외국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구호경비 등의 용도에 지출되고 있음.
- 국제협력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천 8백만원(14.6%) 감소하였음.

< 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5,379,795	1,081,653	1,870,016	△788,363	4,591,432

나. 수입 및 지출

-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액은 24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82억 8천 4백만원 대비 △58억 2천 2백만원(70.3%) 감소되었음.
- 수입은 총 24억 6천 1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원, ▶ 예치금 회수 수입 13억 8천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 2백만원임.
- 지출은 ▶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등 7개 고유 목적사업비 17억 2천 6백만원, ▶ 인력운영비 1억 3천 9백만원, ▶ 여유자금의 시금고 예치금 5억 9천 1백만원 등임.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항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합계	2,461,448	8,283,439	△5,821,991	합계	2,461,448	8,283,439	△5,821,991
전입금	1,000,000	3,300,000	△2,300,000	비용자성사업비	1,725,819	3,192,794	△1,466,975
예치금회수	1,379,795	4,885,939	△3,506,144	인력운영비	139,197	142,370	△3,173
이자수입	81,653	97,500	△15,847	기본경비	5,000	5,000	0
				예탁금	0	4,000,000	△4,000,000
				예치금	591,432	943,275	△351,843

- 국제협력계정은 2005년 기금 조성이후 2021년까지 모두 286억 6천 7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았으며, 내년에도 비용자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17억원 2천 5백만원 규모의 사업비 지출 계획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33억 6천 7백만원, 33억원, 10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필요 사업비를 충당해오고 있음.
- 기금 사업의 대부분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적 사업이고 사실상 수입액의 전부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확대하거나 수입재원을 다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다. 주요사업

- 2021년 국제협력계정의 고유목적 사업에 18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30억 9백만원 대비 △37.9%(11억 3천 4백만원) 감액된 규모임.

< 2021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세부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	사업성격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1,122	896	△226	계속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54	205	151	계속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98	59	△39	계속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180	105	△75	계속

기금명	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	사업성격
대외협력 기 (국제계정)	개도국 국제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300	200	△100	계속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1,250	400	△850	계속
	기금관리비	5	5	0	계속
	소 계	3,009	1,870	△1,139	

(1)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사업별설명서 p.387>

- 자매·우호도시의 인적자원 개발지원과 서울시의 도시행정모델 홍보와 전파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가 자매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2천 6백만원 감액된 8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됨.
-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2021년 입학인원이 20명으로 감소하고 졸업식 및 동문초청행사 취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등 1억 4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국제교류의 중요성으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빈초청여비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또한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의 적절성 판단 여부와 연수프로그램이

교육내용과 연수생에게 필요한 특정 역량분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함.

(2)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별설명서 p.397〉

- 외국도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천만원(280%) 증가한 2억 5백만원이 편성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초청연수, 국제연수정책포럼, 전문가 파견을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편성내역이 변경조정 되었기 때문임.
-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연수생 선발부터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적합성, 사후관리 등 사업 전과정에서 촘촘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연례적으로 기금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만큼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한편 국제협력계정 사업은 자매도시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대상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세부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협력계정과 마찬가지로 국제협력계정 또한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 특별한 재원이 없으므로 사업성과가 검증된 사업이나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6. 지역개발기금

가. 개요 및 조성

- 지역개발기금은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¹²⁾.

<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6,078,666	617,682	0	617,682	6,696,348

- 기금의 주요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이자수익을 비롯한 기금관리수입 등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12) 지역개발기금은 2013년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설치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17)에 따라 기금으로 운용방식이 전환되었음.

9천 6백만원임.

나. 수입 및 지출

- 지역개발기금의 2021년도 운용규모는 66억 9천 6백만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11억 7천 9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49억원, 이자수입 1억 1천 3백만원이며, 기타수입(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 5억 5백만원임.

<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6,696,348	1,175,155	5,521,193	합 계	6,696,348	1,175,155	5,521,193
예탁금 원금회수	4,900,000	0	4,900,000	예치금	6,696,348	1,161,155	5,535,193
이자수입	112,586	132,627	△20,041	기본경비	0	14,000	△14,000
예치금회수	1,178,666	1,042,528	136,138	-	-	-	-
기타수입	505,096	0	505,096	-	-	-	-

-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66억 9천 6백만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금액 세입조치에 따라 예치금이 증가한 것임.
- 지역개발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지역개발채권은 2008년 이후 발행된 바가 없으며 미상환 원리금 소멸시효가 2020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기금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어 2021년 설치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될 계획임.